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0호 [루계 제 25463호] 주제 105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당의령도따라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서해곡창지대에 펼쳐진 천지개벽,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 완공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 깊은 물해를 우리 혁명의 충성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2001년 전투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고 있는 격적적인 시기에 황해남도 물길 1단계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된 소식이 온 나라에 울려퍼져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신심을 전해해도 더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물을 강령적지침으로 들여놓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願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로 일어서는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두고 그 대단한 물길을 향해 남도에 헌신한 데려온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달기하고 펼쳐주신 용대한 대자연개조의 설계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이수령님의 유물을 헌신로 꽂아주시며 이 공사를 개선·태·설호, 백마·칠·산물길을 비롯한 물길건설에서 자랑한 위용을 드러낸 물길건설자들에게 풍토로 말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다그쳐 광대도록 어려지며 걸쳐 물길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황남땅에 건설한 새 역사로 펼쳐주시었다.

주체 101(2012)년 1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드디어 물길건설자들이 수령의 유훈판침을 향해 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같이 멀쳐나선 물길건설자들과 황남 땅 인민들의 불리는 애국충성과 자지강의 정신이 낳은 도로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천지개벽의 창조를 이다.

황해남도물길공사는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농사문화를 두고 그 토록 마음쓰신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달기하고 펼쳐주신 용대한 대자연개조의 설계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이수령님의 유물을 헌신로 꽂아주시며 이 공사를 개선·태·설호, 백마·칠·산물길을

비롯한 물길건설에서 자랑한 위용을 드러낸 물길건설자들에게 풍토로 말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공사를 두고 그 대단한 물길을 향해 남도에 헌신한 데려온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길건설자들에게 풍토로 말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공사를 드디어 물길건설자들이 수령의 유훈판침을 향해 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진행하는 황

해남도물길건설에서 1단계로 맡겨주

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물을 받들고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올해는 우리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끝길은 해이다.

상스러운 조선로동당역사에 걸어 빛 날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정식 할 일정으로 날짜 날을 짐승과 위험으로 수놓으며 런던은 2000일 전후의 결승선이 바이오로 눈앞에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당성, 혁명성을 인민앞에 점증받아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그렇다. 우리 일군들은 그 어느 때보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만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2000일 전후를 완벽하게 걸 속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차기 단위의 승리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

위대한 승리와 친환한 미래는 신님의 강자들의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신님으로 보다.

책들이 있음 수도 없는 《금번사태》를 떠들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의 기지를 높이 휘날리며 세상을 놀라우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선로동당의 본래와 우리의 일상단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계에 다시 한 번 파악하였으며 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확정하였다.

지나온 우리의 승리의 역사도 명실공히 신님의 역사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우리 천민군민의 신님이 활화처럼 폭발되여 거대한 승리를 이루었을 때 일기 없었다.

우리는 북부지역에서 끝난 대체 일을 당하였습니다 때 그 가슴아픈 참상을 원수님은 별의별 억속과 악당들을 다 하였다.

큰 불에 해복구를 2000일 전후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피해복구에 나라의 모든 뼈를 흉동원, 흉집중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벼를 유틸리며 강산을 들었다는 천만의 일심의 대 오가 정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말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상원의 세면드용산자를 철아진 군으로 북부전선에 절묘한 세면드 무조건 생보장, 철도와 해상화물수송에서 거제 강장...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1만 1천여세대의 소총, 단총살림집포조 공사 결속, 40여 일안에 경총군에서 울린 첫 승진포성, 무관과 연사, 회령에서 살립집과 광공진통 렌이어 완공...

온 나라 인민의 기대를 안고 북부 피해전역으로 달려가 군민대단검, 혼연일제의 위력을 파악하는 인민군

군인들과 전설자, 톨격대원들은 물론 북부전선에 천두파지를 정한 심정을 안고 전제 인민이 어디서나 생활 적전의 합성으로 원수들을 전폐해 하였다.

북부피해 지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펼친 이런 편승의 신념으로 우리는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충매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늘 우리를 말하는 김일성·김정일同志의 자랑은 신님의 강자여야 한다.

수천수만의 대중을 최후승리에

로 파악해 고루주동하여야 할 일

은 누구보다도 신님의 강자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혁명신념이 빠져

나갈 때마다 일상에서 아내나

자녀에게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세계정치식의 교훈이다.

신념을 버린 대로 사업을

나누거나 사업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정상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 사

람,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무사부

주한 사람, 지조보다 목숨을 더 귀중

히 여기고 고생을 피한 사람들이 걸

은 원인의 길이 곧 무형번질이고 배

신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적은 국경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인민의 냉각해져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를 확고히 락관하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인민의 냉각해져 있다.

혁명가의 정표를 세는 척도는 그

어떤 척도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며

평등도 아니다.

혁명가는 칭호가 인간세상의 그

모든 칭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고

걸에 예쁘게 배반되는 바탕에는 혁명신념

이 높아진다.

오직 혁명가에게만 고유한 강철같은

의지, 지조와 방식, 총죽같은 철개

도 신념에 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혁명가

에게 있어 혁명신념을 내놓으면

넘는 것이 없다는 말씀하시였다.

원수들은 혁명의 부탁한장을 다 해

나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간의

주자와 동료도 없이 숭고한 리상을

향하여 천동이 울고 풍물이 노호하는

를 불리운다. 한분새로 헤쳐나가는것

이 혁명가의 신념이다.

만약 우리가 일정난 자연재해를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면

어떻게 오늘 같은 새로운 철학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인정할 수 있었으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할을 인정

한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부지런한 파벌에 놔뒀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대세양의 횡무

는 일상에 일상은 청한 것처럼

는 청한 것이다.

북부전역에 탈리한 인민군인들

과 전설자들은 처음 무엇부터 어떻

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대체난의

새벽인계 호르는 이른아침이
었다. 폭산군 읍에서 한데의 소
형빠스가 달려나와 사리현 시장
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소형빠스선에는 60대의 한
녀인도 있었다. 걸보기에는 정
범한 할머니였지만 실은 폭산군
의 어느 한 사업소의 경매였고
일우침은 지배인으로 일어진
경정순이었다.

차장밖으로 지나가는 산길에
눈장을 주고있던 정순이 손이
서도로트제 가방에 앉았다.
그안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차대비나루》라는 제목의 기사
가 실린 지난 8월 7일부 당보
가 들어있었다.

처음 기사를 읽고난 정순은
흥분에 넘쳤다.

《우리 원수님의 일화같은 조
국에 가 또 하나의 재부를 낳게
하였소!》

그날부터 정순은 차대비나
루종사를 얻기 위해 모지풀을
써왔다. 이날도 사비원시에서 회의
가 오후에 열리게 되었지만 그
기회에 차대비나루가 있을
만 힘 풋을 또 찾이불 걸심으로
서둘러 떠나기로 결심이었다.

분독 이 길에 스스로 뛰여든
잊지 못한 나날이 어제같은 때
를 회상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산물들 향금산, 보물
산으로 만들라는 것은 수령님
과 장관님의 유언입니다!》

20년전 봄날 어느 한 산기슭
에 사업소가 새로 옮겨지면서
여울을 헤쳐나온 사업소를 빙우로
생각하면... 보답의 일념을 안고
들우에도 꽃을 피울 각오로 나
서면 막내해 일이란 없는 법이
에요!》

《내 손을 들었소. 차종자는 내
가 맡겠소.》

《고마워요. 절 믿어주세요.》

나라의 이름없던 산간 벽지까지
지 물을 찾아주시고 산을 편 꽃
에서는 산을 잘 미워해다 한디고
하사며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
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고가 그의 가슴에 불꽃의 산염
과 담당한 배령을 심어주었다.

미칠후 산지에 작은 나무로 만
이 생겨났다. 여기에 남편이 구
운은 바탕에 차종자를 뿐만 아니라
승운은 가슴을 조이며 짧이 트
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짧이 둔것은 고작 10개미
단이었다.

술간 머리가 아찔해졌다. 철
기둥 높이 1년을 또 기다릴것을
생각하니 천진의 백이 쑥 빠지
었던 것이다.

다음 순간 정순은 이를 사려들
었다. 성급히 나무로 만든 품을
파보니 차종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전전히 관찰해본
결과 다른 차종자들이 파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짹트지 못한 차종
자들은 하나같이 가을을 심하게
한 땅속에 묻혀있었다.

(사업소만 내기하고 저 멀거
벗은 산들을... 나와의 모든 산
을 먹을지도 나오고 입을지도 나
오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며

실화

푸른

(가을보리농사처럼 가을철에
갓종자를 심을수 있지 않을까
가. 올라. 갓종자를 물에 담그었
다 땅에 품 깊이 심고 가랑잎을
두렵게 덜어주자. 그러면 차엽
길이 빨리 더지게 하면서도 수
분증발을 막아 가뭄피해를 방지
할수도 할수 있고 겨울철의 빙
해도 극복할수 있어 그에 우수
석회까지 뿐더니 주변 산진승과
막거벗은 신을 후대들에게 넘겨
줄수는 없어요.》

《사업소의 생산과제도 이를한
데 예별기.》

《절 지금도 차색속에 살고있
어요. 신천군 산물농민의 땅을
대학봉부시지 차대비나루로
나와 우리 당시 사람과 일을
생각하면... 보답의 일념을 안고
들우에도 꽃을 피울 각오로 나
서면 막내해 일이란 없는 법이
에요!》

《내 손을 들었소. 차종자는 내
가 맡겠소.》

《고마워요. 절 믿어주세요.》

나라의 이름없던 산간 벽지까지
지 물을 찾아주시고 산을 편 꽃
에서는 산을 잘 미워해다 한디고
하사며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
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고가 그의 가슴에 불꽃의 산염
과 담당한 배령을 심어주었다.

미칠후 산지에 작은 나무로 만
이 생겨났다. 여기에 남편이 구
운은 바탕에 차종자를 뿐만 아니라
승운은 가슴을 조이며 짧이 트
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짧이 둔것은 고작 10개미
단이었다.

술간 머리가 아찔해졌다. 철
기둥 높이 1년을 또 기다릴것을
생각하니 천진의 백이 쑥 빠지
었던 것이다.

다음 순간 정순은 이를 사려들
었다. 성급히 나무로 만든 품을
파보니 차종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전전히 관찰해본
결과 다른 차종자들이 파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짹트지 못한 차종
자들은 하나같이 가을을 심하게
한 땅속에 묻혀있었다.

(사업소만 내기하고 저 멀거
벗은 산들을... 나와의 모든 산
을 먹을지도 나오고 입을지도 나
오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며

정순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했다. 혼자 원
심을 쓰느라 잠시까지 웃었다.
이제 그 사업을 안 당조직에
서 적극 지원해주고 필요한 대
책을 세워주었다. 온 사업소가
면면이나 주변 산들에 있는 차나무
들을 찾아내고 차종이에 알이
들어 막을수 있을거라...》

차종의 얼굴에 청순의 얼
굴은 궁지로 빠져들었다. 하
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면
차종자가 있어야

주체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영원하다

근질기게 간행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폐회들의 광활적인 북침핵전쟁도발책동과 악랄한 만공화국제재소동을 담대하고 과격적인 호강경대옹조치들로 척부서버리는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놀라움속에 지켜보고 있다.

체대세력의 사상 뿐에 없는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제압분쇄하며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승리의 길을 열 우리 공화국의 모습을 보며 해외여의의 온 계례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봤다. 최근으로 미 국과 박근혜에게 당당히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갖춘 명실상부한 해강국의 지위에 출마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화국과 같이 그처럼 끊임이 찌강의 보호율을 국제위에 펼쳐놓은 기관은 최강의 보호율을 국제위에 펼쳐놓은 것이다.

우리의 행정은 이미 세계의 존엄이며 생명이다.

강력한 정의의 힘으로 영원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한 우리의 손에는 정세변화와 주도권도, 평화와 안정수호의 보검도 다 휘어져있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이 우리 공화국의 철학적지위를 한사고 부정하면서 우

리의 자주권력을 세계에 알맞게 걸고들고자 남조선의 지위는 걸고 적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악해지는 것

이 아니라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눈치를 봄에 제 할바를 뜯는 나약한 민족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숙명론은 이미 파괴사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깃발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강화하고 미처 날뛰었던 박근혜당의 무분별한 망동은 우리에게 역수역의 질량적 강화를 위한 기

희망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적대세력의 오만무에 한 반봉화 국도발행위에 정면으로 맞서 초강경대응조치들을 편축 취향으로써 해에는 해으로 물까지 맞서나갈 굳건한 의지를 남김 없이 파시하였다.

우리는 이미 대세의 흐름에 여행하며 푸모하게 남위는 미국과 박근혜당에게 나날이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뽐나보며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엄숙한 경고를 보내었다. 그것을 외연하고 어색은 망동을 계속 부린탓에 원주민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지금 그 무슨 『제재효과』에 대해 아직도 망망하며 훨씬 높음을 벌리고 있는 미국과 박근혜당은 특별히 알아야 한다.

나파의 경제발전도 인민생활향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쾌의 지경으로 미군민영의 새시대를 일어나길 것이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하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제사회에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단독으로 맞붙어 승리만을

먼지지는 조선의 배향과 용기에 대한 찬란

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미국은

의 원령『노릇』을 하며 세계상처를 날치

던 미국은 기가 완전히 쥐이고 그 후종

세력들은 구도의 철망감에 빠져 전진을

멈춰놓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역적폐당의 처지는 서리를

기다리는 마가을초무의 신세이다.

핵동의를 휘두르며 온갖 뭇чин적을

다하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바탕으로 초불신세로 만들어놓고 세계에 다불비대는 선군조선의 위액에 진보적인류는 통폐감을 금지 못해하고 있다.

역시 조선민족은 간단치 않은 민족이며 위대한 수령의 정도를 받는 조선의 민족과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찬란의 목소리가 높아고 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지금 그 무슨 『제재효과』에 대해 아직도 망망하며 훨씬 높음을 벌리고 있는 미국과 박근혜당은 특별히 알아야 한다.

나파의 경제발전도 인민생활향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쾌의 지경으로 미군민영의 새시대를 일어나길 것이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하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하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흔미술한 적들이 짹 하면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하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흔미술한 적들이 짹 하면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초강도의 군사적대응조치들을 편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박근혜당은 완

전히 혼란에 나가 하등지동이며 저들의

쇠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날

이 드러내놓았다.

하던 휘파제처럼 모여들어 그 무슨 대책을 풀어놓은 어ђ憾하니며 범서열되지 않고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이었고 때면 저들의 전략적실패를 짜증끼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식민지주구를 건져주기 위한 현지행각

얼마전 미 국과 함께 남조선을 비롯해 세계에 대한 미국과 박근혜당의 비

교부들은 남조선을 비롯해 세계에 대한 미국과 박근혜당의 비

한 곳에서 거리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함께 남조선을 비롯해 세계에 대한 미국과 박근혜당의 비

교부들은 남조선을 비롯해 세계에 대한 미국

동방의 핵강국은 자기의 위용을 더욱 떨쳐갈 것이다

핵폭발로 우리 공화국을 이제 보여준 미국이 저들의 기도가 물거품으로 되고 도리어 본토안전이 위험에 빠진다 대체 극도의 불안과 좌절감에 휘어들고 있다. 그간 속에서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 현실 장관 등이 우리의 핵억제력의 현 상황과 위력을 대해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VOA방송은 핵탄두를 텁텁한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은 미분포로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에 접근하였다고 하면서 고도로 정밀화된 조선의 핵무기와 탄도로켓은 미국에 적절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 국제보안연구소 소장은 조선이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한 도로에 탑재에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서방의 조선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보한 행동이 조선의 핵보유라는 걸과 별개로 우려의 비약적인 핵무력 강화로 미국의 핵선제타격 전략은 이미 물건너갔으며 다음기 미 행정부는 조선에 문제 해결이라는 데 우진박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여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를 놓더라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와 전략적지를 통해 대한 학선제 전략을 물고 다니던 미국의 경쟁보수파 인물들이 어른의 팔을 놓습니까에 맞고 있다.

조선의 핵보유 능력을 파소경 가하고 핵선제 타격을 하려는 웅직임

을 보였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염증한 후파를 입을 수 있다는 비난이 돌아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 중시 험방사와 핵탄두 폭발시험에서의 성공,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정상적인 탄도로켓 험방사에 대한 세계에 공개하였다.

실질 때 미친 갈수 핵탄도 폭발과

동식 경기리로 텁텁한 조선에 대해 추적 및 소령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이것은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달하면 아시아 대량 핵전쟁에 대한 미제의 핵침략군 기지들은 물론 온갖 악의 본거지인 미국 본토를 블라디로 만들어놓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취임 할 때에는 조선이 평화협정체결과 학

동군사연습의 중지를 당당히 요구할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며 만일 미

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다

더 엄중한 사태에 맞다를 것이다

로 내다보았다.

지금까지 유일 초대 국이 합시고 거

돌려보이며 다른 나라들을 전쟁의

불바다 속에 빠뜨리고 굴종을 강요

하는데 습관되었던 미국지배의 시

대가 이제는 보기 좋게 막을 내리고

있다.

군사부문에서 제노라고 하는 전

미국방정책, 결 유럽 주둔 미군사령관

집 나토 군용 사령관과 군수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은

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전략으로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

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주제 이전 영국대

사가 발표한 글도 미국에는 표훈으

로 평가되는 것 같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반대하는

유격투쟁을 개시하는 등 조직적

인 면으로 빠져나온 땅을 찾기

위한 두쟁이 강화되었다.

결과 1988년 11월 팔

엔의 군사적 강탈을 끌고 있으며

유엔 무대에서 올해 베이징의 지

비상회의에서는 구드스를 수

도로 하는 팔레스타니 국가 창

전이 선포되고 독립선언이 제

되었다.

하지만 팔레스타니 민족이 차

기의 남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활동하고 아제르바이잔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승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있는 법이다.

자기 위엄의 정당성을 확신하

고 있는 팔레스타니 민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민사기자 손 소연

로 될 것이다.

그는 수십년 간 걸치는 미국의

대조선 압박정책은 우리

의 해 및 미

비

바일개 획득을 조금도 멈춰 세우지 못

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진척시켰으며 현재 그 능력은 미국

의 도시들을 완전히 쓰러버릴 수

있는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시간은 미국에 있으며

조선은 봉쇄만 하면 망한다는 오마

미의 전략적인 대응책이 원전히 실

현된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 할 수 없다

고 떠나면서 반공화국 세력

에 미쳐 날뛰었지만 우리는 누

가 꾸리고 하는 그림 없이 당시에

로운 병진으로 선전의 바

행복을 실현하였다.

그는 그들이 그를 탐탁하여 미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었다.

오늘은 우리

의 한 전문가는 정양에서 특히

눈에 띠는 번화장의 하나는 거

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인상이 매우

평온하다. 누구도 전쟁이 일어날가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같다. 라

무기와 함께는 인상이 아니었다. 해

무기가 있다는 것이 미국과 그 통행

자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는 확신을